



# 신흥국 보험시장의 전망과 과제<sup>1)</sup>

홍민지 연구원

연구

최근 국내 보험회사들의 신흥국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신흥국 보험시장 성장 전망에 대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Swiss Re는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신흥국 비중이 2028년에 28%를 차지할 것이며, 2035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보험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함. 신흥국의 보험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규제, 시장 접근성, 기술의 발전, 도시화 및 인프라 구축, 포용 금융 등이 있으며, 신흥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인구 고령화, 무역 의존도, 금융 변동성, 높은 부채 등은 신흥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임

- 최근 국내 보험회사들의 신흥국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신흥국 보험시장 성장 전망에 대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 7개사<sup>2)</sup>와 생명보험회사 5개<sup>3)</sup>가 17개국에 진출(2018년 11월 기준)하였으며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음<sup>4)</sup>
- Swiss Re는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신흥국<sup>5)</sup>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기준 18.8%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8년에는 28%를 차지<sup>6)</sup>할 것으로 예상하며, 2035년에는 중국이 세계최대 보험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향후 2년간 전 세계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률은 3% 수준에 그칠 것이나, 신흥국 보험시장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각각 8%, 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표 1〉 참조)
    - 중국과 인도의 손해보험시장은 농업보험을 중심<sup>7)</sup>으로 10%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됨

1) Swiss Re(2019), “Emerging markets: the silver lining amid a challenging outlook”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함  
 2)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서울보증보험, 코리안리  
 3)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4) 지난해 손·생보험회사는 해외 진출 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회를 출범하여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함  
 5) 선진국과 신흥국의 구분은 IMF의 정의를 따름. 선진시장에는 미국, 캐나다, 서유럽(터키 제외), 이스라엘, 오세아니아, 일본,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이 해당되며 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신흥시장으로 분류됨  
 6) 중국시장이 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7) Swiss Re(2018), “Global economic and insurance outlook 2020”, p. 12

- 중국의 생명보험시장은 중산층 및 도시 거주 인구 증가 등에 힘입어<sup>8)</sup> 11%의 성장률이 예상됨

〈표 1〉 전 세계 및 신흥국 보험시장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시기	전 세계	신흥국		
			전체	중국	인도
손해보험	2013~2017년	3	8	16	10
	2018년	3	8	12	13
	2019~2020년(전망)	3	8	10	12
생명보험	2013~2017년	2	10	17	4
	2018년	2	1	-2 <sup>주)</sup>	8
	2019~2020년(전망)	3	9	11	7

주: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자산관리상품(WMP: Wealth Management Product) 규제 강화임  
자료: Swiss Re(2019)

■ 신흥국 보험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규제, 시장 접근성, 기술의 발전, 도시화 및 인프라 구축, 포용 금융 등이 있음

- (규제) 자본건전성 기준, 자동차 배상책임 의무보험, 개인정보 활용 등 보험산업의 적절한 규제는 보험시장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시장 접근성) 국경 간 비즈니스 및 자본 흐름 제한, 외국 자본의 소유권 제한 등과 같은 신흥국의 무역 장벽은 보험시장이 효율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기술 발전) 인슈어테크는 보험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험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비즈니스의 이윤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 풀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도시화 및 인프라 구축)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건설보험과 같은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개인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 (포용 금융) 보험회사는 포용적 보험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새로운 리스크 풀을 구축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음<sup>9)</sup>

■ 또한, 신흥국 보험시장은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와 동반 성장하는데, 인구 고령화, 무역 의존도, 금융 변동성, 높은 부채 등과 같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은 앞으로 신흥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평가됨

- 인구고령화는 대부분의 신흥국이 당면한 과제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

8) Swiss Re(2018), "New emerging risk insights", p. 11

9) 포용적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홍민지(2018. 2. 23), 「보험회사의 포용적 보험 진출 현황과 과제」,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을 참조함

-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만의 문제로 여겨졌으나 최근 신흥국에서도 인구고령화가 가속화<sup>10)</sup>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짐
- 신흥국의 무역의존성이 커지면서 외부요인에 의한 원자재 가격 변동에 경제가 취약해짐
- 신흥국 금융부문이 자유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선진국의 재정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됨
- 부채를 기반으로 한 성장전략은 신흥국의 단기적인 부양책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의 구조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 **kiri**

10) 중국은 2055년에 고령인구 의존비율(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